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정상 노년층의 쓰기와 말하기 간의
결속표지 사용 비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이 정 원

정상 노년층의 쓰기와 말하기 간의
결속표지 사용 비교

지도교수 김 향 희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2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이 정 원

이정원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김 향 희 인

심사위원 서 상 규 인

심사위원 송 현 주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년 12월

감사의 글

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아 논문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언어병리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모든 면에서 지도해 주신 김향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논문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서상규 교수님과 송현주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치료실습을 감독해주시고 부족한 저를 지식과 태도 모든 면에서 가르쳐주신 박지은 선생님과 김수정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늘 제 선택을 믿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저자 씀

차 례

표 차례	iii
부록차례	iv
국문요약	1
I. 서론	2
1. 이론적 배경	2
2. 연구의 필요성	5
3. 연구 가설	6
II. 재료 및 방법	7
1. 연구 대상	7
2. 연구 방법	8
가. 도구	8
나. 자료수집	9
3. 자료 분석	10
가. 발화 구분	10
나. 결속표지 판별 및 정확성 여부 판별	11
다. 결속표지 사용률 및 정확률 산출	12
4. 통계 분석	13
5. 신뢰도 분석	13
III. 연구 결과	14
1. 결속표지 전체 사용빈도 및 정확률	14

2. 결속표지 유형별 사용률	15
3. 결속표지 유형별 정확률	16
IV. 고찰	18
V. 결론	23
참고문헌	24
부록	28
Abstract	35



표 차례

표 1. 연구 대상자	7
표 2. 의사소통 단위 당 결속표지 전체 사용빈도 ..	14
표 3. 쓰기와 말하기의 결속표지 유형별 사용률 ...	15
표 4. 쓰기와 말하기의 결속표지 유형별 정확률 ...	17
표 5. 결속표지 유형별 정확률 차이의 사후검정 결과	... 17



부록 차례

부록 1. 전사 규칙과 그 예	28
부록 2. 문장 및 발화 구분 원칙과 그 예	30
부록 3. 결속표지 판별 원칙과 그 예	32
부록 4. 각 결속표지 유형의 정의와 분석범위 및 예	33
부록 5. 결속표지 정확성의 판별 원칙과 그 예	34



국문요약

정상 노년층의 쓰기와 말하기 간의 결속표지 사용 비교

정상 노년층은 명확한 의사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속표지를 모호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노년층 의사소통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는 데 결속표지 연구는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상 노년층의 쓰기와 말하기에서의 결속표지 사용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정상 노년층 30명을 대상으로 흥부 놀부 이야기를 쓰기와 말하기로 산출하도록 하였다. 이후 결속표지 사용률과 정확률을 어휘적 결속, 생략, 지시적 대응, 접속표지의 유형으로 나눠 산출한 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쓰기는 말하기보다 참조적 결속표지, 그 중에서도 어휘적 결속표지의 사용률이 높았다. 이는 쓰기 산출 시에 구체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잠재된 모호함을 피할 필요와 정확한 어휘를 인출하고 선택할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휘적 결속표지는 생략표지에 비해 높은 정확률을 보였다.

즉, 노년층은 쓰기로 산출할 때 더 많은 구체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결속을 이루며, 이는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돕는다. 또한, 노년층의 저하된 결속표지 사용의 특징이 쓰기에서는 적게 나타나므로, 쓰기를 통해 노년층의 의사소통능력을 증진할 가능성을 찾아 볼 수 있다.

핵심되는 말: 정상 노년층, 결속표지, 쓰기, 말하기, 담화

정상 노년층의 쓰기와 말하기 간의 결속표지 사용 비교

<지도교수 김 향 회>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이 정 원

I. 서론

1. 이론적 배경

결속표지(cohesive devices)는 앞 문장에서 제시된 내용을 대명사로 지칭하거나 어휘를 반복해서 지칭하는 것과 같이 문장을 서로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적 장치를 말한다.¹⁻³ 결속표지의 유형에는 지시적 대응표지, 무표 대응인 생략표지, 낱말의 되풀이를 포함하는 어휘적 결속표지, 그리고 접속표지가 있다.^{2,3} 여기에서 지시적 대응표지, 생략표지, 어휘적 결속표지는 크게 참조적 결속표지의 범주에 속하며, 접속표지는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주를 이룬다.^{2,3} 참조적 결속표지들은 선행 문장의 특정 항목을 참조하여 두 문장 간에 조응관계를 만들어 준다.^{2,3} 반면에, 접속표지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진 접속부사를 사용하여 두 문장을 의미적으로 연결한다.^{2,3}

여기서 결속표지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지시적 대응표지는 지시관형사와 명사가 합쳐진 형태(예: 그 안), 지시대명사(예: 거기), 인칭대명사(예: 우리)를 포함한다.² 예를 들면,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줬어요. 그래서 흥부는 정성껏 그것을 심었어요.'라는 예시 문장에서, '그것'은 지시대명사로

선행 문장의 ‘박씨’를 가리키는 지시적 대용표지이다. 생략표지는 지시적 대용표지와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 표층구조에 나타나지 않는다.³ 예컨대, 위와 같은 예시 문장에서 후행문장이 ‘그래서 흥부는 정성껏 ∅ 심었어요.’인 경우, 목적어 성분(∅)에서 선행 문장에 나온 ‘박씨를’이 생략되어 있으며 이것을 생략표지라고 한다. 어휘적 결속표지는 앞선 문장에 나타난 참조물을 동일어휘 또는 유사어휘를 사용해 참조하는 것이다.^{2,3} 예를 들어, 위의 예시 문장에서 후행문장이 ‘그래서 흥부는 정성껏 박씨를 심었어요.’라고 표현되는 경우, ‘박씨를’이 어휘적 결속표지이다. 생략표지는 음운론적인 요구가 없어 비교적 사용하기 쉬운 형태이다.⁴ 그러나 생략표지는 어떤 참조물을 지칭하는지를 모호하게 하여 정보의 명확한 전달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⁵ 특히 이 생략표지가 참조물이 전환되는 문맥에서 사용되면 결속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다.^{4,5} 반면에, 어휘적 결속표지는 의식에 표상된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를 선택하여 이를 인출해야 하는 인지적 요구가 뒤따른다.⁴ 그러나 어휘적 결속표지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기 용이하다.^{4,5} 마지막으로 접속표지의 경우는 크게 내용의 확대나 전환을 위해 특정한 의미를 가진 접속부사를 사용하는데,^{2,5} 그 예로는 위의 예시문장에서 후행문장의 ‘그래서’를 들 수 있다.

한편, 결속표지의 사용 양상은 쓰기와 말하기에서 차이를 보인다.⁵⁻⁷ 일반적으로 말하기보다 쓰기에서 총 결속표지가 적게 사용되나,⁶ 결속표지 유형에 따라 그 사용 양상이 다르다. 생략표지는 말하기보다 쓰기에서 덜 사용되는 반면,^{5,7,8} 어휘적 결속표지는 말하기보다 쓰기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5,7} 또한, 접속표지는 말하기보다 쓰기에서 사용이 적다.^{7,9} 이러한 결속표지 사용의 차이는 쓰기와 말하기의 본질적 속성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쓰기는 말하기와 비교해 생각이 즉각적으로 표현되지 않으며, 되돌아가서 반추하여 고치거나 보충할 수 있다.⁸⁻¹⁰ 반면에 말하기는 상대적으로 생각과 표현을 즉각적이고, 순차적으로 산출하게 된다.⁸⁻¹⁰ 또한,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쓰기의 경우, 대면한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대신, 먼저 잘 짜인 내용으로 표현

한 뒤 이후에 전달됨을 가정한다.^{8,9} 반면에 말하기는 대면한 청자에게 발화와 동시에 내용이 전달되고 피드백을 받는 즉각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8,9}

이러한 시간적, 상호작용적 측면에서의 본질적 속성의 차이로 인해, 쓰기는 말하기에 비하여 복잡한 구문 구조와 다양한 어휘의 사용을 보인다.^{5,9,11,12} 반면에 상대적으로 말하기는 의식에 나타난 그대로의 어휘를 사용하고 단편적인 문장들을 떠오른 순서에 따라 이어나가는 경향이 있다.^{5,9,11,12} 이러한 쓰기와 말하기 간의 차이는 노년층에서도 이어진다.¹¹ 쓰기와 말하기에서 문장과 어휘 사용이 차이가 나면서 문장 간의 결합을 위한 결속표지의 사용 양상에 영향을 준다.

그런데 만약 화자가 결속표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문장 내의 모호한 의미관계가 창출되고 결국 청자에게 명확하지 않은 정보가 전달된다.^{1,13-17} 그런데 말하기 연구에서, 노년층은 결속표지를 모호하게 사용하며 문장 간 조응관계를 표현함에 있어 빈번한 오류를 보인다.¹³⁻¹⁷ 구체적으로, 지시적 대용과 생략에서의 오류뿐만 아니라,¹³⁻¹⁶ 참조물과 그 특성 혹은 행동을 잘못 연결하는 식으로 어휘적 결속에서의 오류도 보인다.¹⁵ 또한, 주요한 참조물의 적절한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어휘적 결속 대신 그 참조물의 특성을 풀어 명사구로 지칭하거나 지시적 대용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13,16} 쓰기에서 어휘적 결속을 많이, 생략과 지시적 대용표지를 적게 사용하는 정상성인의 결속표지 특성이 노년층까지 이어진다면, 노년층의 쓰기는 말하기에 비해 결속표지 측면에서 혼동이 적고 명확할 수 있다.

2. 연구의 필요성

결속표지는 전체적인 주제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에게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도록 한다. 그런데 노년층은 말하기에서 저하된 결속표지 사용능력을 보이고,¹³⁻¹⁶ 이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에 방해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정상성인의 결속표지 사용 특성에 비취볼 때, 노년층 역시 쓰기와 말하기에서 서로 다른 결속표지 사용 특징을 보일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노년층의 쓰기와 말하기 결속표지 사용의 비교를 통해 노년층의 원활한 언어생활, 특히 아직 노년층의 삶에 더 밀접한 말하기 의사소통을 위해 쓰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인터넷 활용증가와 노년층의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사용증가로 인해^{18,19} 노년층에서 쓰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말에서 연구된 적 없는 정상 노년층 쓰기의 결속표지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정상 노년층의 쓰기와 말하기의 결속표지 사용을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상 노년층이 느끼는 언어생활의 어려움을 밝히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로써 쓰기·말하기 각 담화를 산출할 때 어려움이 있는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상호 간에 보조 수단 혹은 훈련수단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정상 노년층의 결속표지 사용을 쓰기와 말하기 간에 비교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 정상 노년층의 쓰기는 말하기에 비해

(1) 결속표지 전반에서

(가) 문장 당 결속표지의 사용수가 적을 것이다.

(나) 결속표지 전체 정확률은 높을 것이다.

(2) 사용률 측면에서

(가) 전반적인 참조적 결속표지의 사용률은 높을 것이다.

① 그 중, 어휘적 결속표지의 사용률은 높을 것이다.

② 그 중, 생략표지의 사용률은 낮을 것이다.

③ 그 중, 지시적 대용표지의 사용률은 낮을 것이다.

(나) 접속표지의 사용률은 낮을 것이다.

(3) 정확률 측면에서

(가) 어휘적 결속표지의 정확률은 높을 것이다.

(나) 생략표지의 정확률은 높을 것이다.

(다) 지시적 대용표지의 정확률은 높을 것이다.

(라) 접속표지의 정확률은 높을 것이다.

나. 정상 노년층의 쓰기와 말하기 내에서 어휘적 결속의 정확률은 생략, 지시적 대용의 정확률보다 높을 것이다.

II.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30명 (남 10, 여 20)이었다(표 1).

노년층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1) 본인이나 가족의 보고에 의해서 인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경학적 질환의 경험이 없으며; 2) Korean-Montreal Cognitive Assessment(K-MoCA)²⁰를 통해 정상이라 판단되고²¹; 3) 교육 수준이 말하기 및 쓰기 담화 산출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에 따라^{10,11,17,22,23} 교육년수가 12년 이상이며; 4) 지시를 따르고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청각 능력을 갖추고; 5) 오른손잡이로, 글을 쓰는데 필요한 오른손의 움직임에 문제가 없는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70.20년 \pm 5.33이며, 평균 교육년수는 13.80년 \pm 2.25이었다(표 1). K-MoCA의 평균점수는 26.10 \pm 2.13이었다(표 1).

표 1. 연구 대상자

대상자 수	연령 ¹	교육년수 ¹	K-MoCA ¹	과제 순서 ²	
				쓰기	말하기
30	70.20 \pm 5.33	13.80 \pm 2.25	26.10 \pm 2.13	15	15

¹ 평균 \pm 표준편차

² 쓰기와 말하기, 두 과제 중 대상자가 먼저 시행한 과제를 나타냄.

2. 연구 방법

가. 도구

이야기 산출을 위하여 전래동화 ‘흥부와 놀부’를 축약한 그림 24를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그림은 선행 연구에서 축약한 그림을 그대로 사용하였다.^{23,26} 축약한 과정은, 먼저 24컷의 컬러 그림으로 이루어진 원본 동화책에서 글자 자극을 삭제한 후, 2명의 정상 성인에게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6장의 그림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25,26} 한국인에게 친숙한 내용의 전래동화를 선택한 것은 대상자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²⁷ 더불어 결속표지의 사용 오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말하는 내용을 연구자가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²⁸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자발화 분석을 실시한 국내 연구의 결과물과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도 기존에 많이 사용되어 온 전래동화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이다.^{9,26,29}

나. 자료 수집

연습에 의한 효과를 상쇄하기 위하여 대상자 중 무작위로 절반은 이야기 쓰기 과제를 먼저, 나머지 절반은 말하기 과제를 먼저 실시하였다. 과제 실시 순서를 정한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1번에서 30번까지 난수를 생성하였고, 난수는 말하기와 쓰기가 50대 50의 비율이 나오도록 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대상자들이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지금부터 동화 ‘홍부와 놀부’의 그림 6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줄거리를 파악해보세요.”라고 한 뒤 6장 그림을 차례대로 각각 5초 이내로 보여 주었다.^{25,26} 줄거리 파악이 끝난 후, 말하기를 시행할 때는 “지금부터 그림을 잘 보시면서 어린아이에게 옛날이야기를 하듯이 말씀해주세요.”라고 지시를 주었다.²⁶ 쓰기를 시행할 때는 “지금부터 그림을 잘 보시면서 어린아이에게 옛날이야기를 써서 보여준다고 생각하시고 써주세요. 될 수 있는 대로 문장을 만들면서 써주세요.”로 바꾸어 지시 사항을 들려주었다. 이야기 시작을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옛날에 홍부와 놀부 형제가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의 첫부분을 검사자가 알려주고 뒷부분의 이야기를 유도하였다.²⁶ 대상자가 발화나 글쓰기를 하는 도중에 연구자는 눈 맞춤이나 반응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단, 이야기하는 도중 대상자의 발화가 중단되어 5초 이상 침묵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래서요?” 혹은 “그 다음은요?”라고 질문하여 반응을 유도하였다.²⁶ 충분한 발화를 이끌어 내고 이야기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시간제한은 없었다. 쓰기의 경우 수정을 허용하였다. 말하기와 쓰기 모두 최소 5개의 발화 혹은 문장을 포함하는 담화자료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3. 자료 분석

가. 발화 구분

본 연구의 말 자료는 수집한 후 1~2일 이내에 전사하였다. 한국어 구어 말뭉치 연구³⁰을 참고하고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전사 규칙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전사한 말 자료와 쓰기 자료는 분석을 위해 문장 및 발화구분원칙에 따라 나누고 번호를 붙였다. 말하기와 쓰기 모두 기본적으로 종결어미를 기준으로 단위를 구분하되, 문장이나 발화가 접속어미로 연결되어 무제한으로 늘어날 수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한 기준을 추가하였다. 구어에서 연결어미는 종종 종결어미의 기능을 수행하는데,³¹⁻³⁵ 이 현상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지만 많은 경우 억양 등 운율적인 요소에 의해 종결어미화가 이루어진다.³¹⁻³⁵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연결어미와 종결어미 모두로 제시되는 어미들과,³⁶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종결어미로도 쓰일 수 있는 연결어미를 참고하여 문장 및 발화구분원칙에 반영하였다.^{32,34} 또한, 본 연구에서 수집된 쓰기 자료 중 종결어미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연결어미로 길게 이어진 담화자료가 관찰되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 문어에서 문장은 일반적으로 종결어미로 나뉜다는 일반적인 원칙 외에 추가적인 문장구분원칙을 제시하였다. 문어는 구어처럼 억양이나 쉼 등 운율적인 요소로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종결어미로도 쓰일 수 있는 연결어미 중 선행연구에서 이미 완전한 종결어미로 자리매김했다고 간주한 연결어미 ‘-고’와 ‘-는데’를 기준으로 원칙을 추가 제시하였다.^{35,37} 문장 및 발화구분원칙의 기준과 예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나. 결속표지 판별 및 정확성 여부 판별

의사소통단위를 구분한 뒤 국내의 기존 참조적 결속표지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어휘적 결속, 생략, 지시적 대응, 접속의 결속표지를 분석하였다.^{2,14} 결속표지는 완전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문장 밖을 찾아보아야 하는 요소로 정의하였고, 판별 기준과 예는 (부록 3)에 제시하였다. 또한, 결속표지의 유형과 정확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각각 (부록 4)와 (부록 5)에 제시하였다. 결속표지의 정확성은 결속표지에 의해서 참조되는 정보를 모호함 없이 찾을 수 있고 전달하는 정보가 옳은 경우 정확한 결속으로 보았다. 정확한 결속과 오류적 결속의 세부 판단 기준과 예는 (부록 5)에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속표지의 정확성은 연구자가 대상자 담화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다.²⁸



다. 결속표지 사용률 및 정확률 산출

대상자마다 담화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동일한 조건에서 확인하기 위해 사용수가 아닌 사용률로 산출하였다. 먼저 문장 및 발화 당 결속표지의 사용수를 구하여 담화의 결속성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후 각 결속표지의 사용률과 정확률을 산출하였다.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문장 및 발화 당 결속표지 사용수: 총 결속표지 수/총 문장(발화) 수

(2) 사용률

(가) 참조적 결속표지 수: 어휘적 결속표지 수+ 생략표지 수+ 지시적 대응표지 수

(나) 참조적 결속표지 사용률: (참조적 결속표지 수/총 결속표지 수) × 100

(다) 어휘적 결속표지 사용률: (어휘적 결속표지 수/총 참조적 결속표지 수) × 100

(라) 생략표지 사용률: (생략표지 수/총 참조적 결속표지 수) × 100

(마) 지시적 대응표지 사용률: (지시적 대응표지 수/총 참조적 결속표지 수) × 100

(바) 접속표지 사용률: (접속표지 수/총 결속표지 수) × 100

(3) 정확률

(가) 전체 정확률: (정확한 결속표지 수/전체 결속표지 수) × 100

(나) 어휘적 결속표지 정확률: (정확한 어휘적 결속표지 수/어휘적결속표지 수) × 100

(다) 생략표지 정확률: (정확한 생략표지 수/생략표지 수) × 100

(라) 지시적 대응표지 정확률: (정확한 지시적 대응표지 수/지시적 대응표지 수) × 100

(마) 접속표지 정확률: (정확한 접속표지 수/접속표지 수) × 100

4.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통계 프로그램(Ver.18.0)을 사용하였다. 말하기와 쓰기 간의 결속표지 사용률과 정확률, 문장(발화)당 사용빈도를 비교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시행하였다. 또한, 말하기와 쓰기 과제 내에서 결속표지 유형에 따른 수행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배치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은 Tukey HSD를 사용하였다.

5. 신뢰도 분석

자료 분석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평가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제 1평가자는 연구자이고 제 2평가자는 언어병리학 전공 대학원생 1명이었다. 자료 평가를 하기 전에 제 2평가자에게 전사일반규칙과 문장구분 방법, 결속표지 판별 및 적절성 평가방법을 숙지시켰다. 이후 자료 전체에서 10%를 임의로 선택하여 전사, 문장구분, 각 결속표지 여부 및 유형 판별, 그리고 각 결속표지의 정확성 판별을 제 1평가자와 제 2평가자가 독립적으로 시행하였다. 각 단계별로 시행한 뒤 확인하고, 분석에 차이가 나는 것은 평가자들 간에 토의를 거친 후 다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한 결과물을 일치하는 평가수치를 일치하는 평가수치와 불일치하는 평가수치를 합한 수치로 나누어 100을 곱하여 일치도를 구하였다. 말하기 과제의 어절을 단위로 하고 긴 쉼과 큰 억양변화를 중점적으로 확인한 전사 신뢰도는 92%, 문장구분 95%, 결속표지 여부 판별 93%, 유형 판별 97%, 정확성 판별 91%였다. 쓰기과제는 문장구분 94%, 결속표지 여부 판별 95%, 유형 판별 98%, 정확성 판별 96%였다.

Ⅲ. 연구 결과

1. 결속표지 전체 사용빈도 및 정확률

쓰기와 말하기의 문장 및 발화 당 결속표지 전체 사용빈도와 정확률의 기술 통계 및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결속표지 전체 사용빈도는 말하기(2.18 ± 0.48)보다 쓰기(1.66 ± 0.40)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 < 0.001$). 총 결속표지 중 올바르게 산출한 비율은 쓰기(95.24 ± 12.58)와 말하기(87.94 ± 18.36)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2. 발화 및 문장 당 결속표지 전체 사용빈도 및 전체 정확률

분석 \ 과제	쓰기 (평균±표준편차)	말하기 (평균±표준편차)	t
전체 사용빈도	1.66 ± 0.40	2.18 ± 0.48	-5.888***
전체 정확률 ¹	95.24 ± 12.58	87.94 ± 18.36	1.844

¹ 단위는 %.

*** $p < 0.001$

2. 결속표지 유형별 사용률

쓰기와 말하기 간에 결속표지 유형별 사용률을 비교한 기술통계 및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전반적으로 참조적 결속표지 사용률은 말하기(77.46±9.85)보다 쓰기(93.06±7.15)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접속표지의 사용률은 말하기(22.54±9.85)보다 쓰기(6.94±7.15)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참조적 결속표지 내에서는 어휘적 결속표지의 사용률이 말하기(62.61±19.26)보다 쓰기(79.50±15.06)에서 유의하게 높았다(p<0.001). 이에 비하여, 생략표지의 사용률은 말하기(32.44±17.05)보다 쓰기(18.91±13.89)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01). 지시적 대응표지의 사용률도 말하기(6.40±9.51)보다 쓰기(1.59±4.36)에서 유의하게 낮았다(p<0.05).

표 3. 쓰기와 말하기의 결속표지 유형별 사용률¹

과제 \ 유형	쓰기 (평균±표준편차)	말하기 (평균±표준편차)	t
참조적 결속표지	93.06±7.15	77.46±9.85	8.147***
어휘적 결속표지	79.50±15.06	62.61±19.26	4.769***
생략표지	18.91±13.89	32.44±17.05	-4.319***
지시적 대응표지	1.59±4.36	6.40±9.51	-2.661*
접속표지	6.94±7.15	22.54±9.85	-8.147***

¹ 단위는 %.

*p<0.05

***p<0.001

3. 결속표지 유형별 정확률

쓰기와 말하기 결속표지 정확률의 기술통계 및 대응표본 t-검정 결과는 (표 4)와 같다. 연구대상자가 지시적 대용과 접속표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난 결측값은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의 결측값 대체 기능을 통해 계열 평균값으로 대체하여 분석하였다. 쓰기와 말하기 간에는 유형별 정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어휘적 결속표지는 쓰기(97.20 ± 7.97)와 말하기(94.05 ± 11.91)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생략표지도 쓰기(88.78 ± 27.42)와 말하기(74.88 ± 39.46)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시적 대용표지에서도 쓰기(75.00 ± 16.08)와 말하기(75.22 ± 25.84)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접속표지에서도 쓰기(100 ± 0.00)에서 말하기(97.70 ± 6.56)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쓰기와 말하기 과제 내에서 결속표지 유형에 따라 정확률에 차이가 있는지를 이원배치 반복 측정 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결속표지 유형에 따라 정확률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6.546, p<0.001$). Tukey HSD 사후검정 결과, 어휘적 결속표지는 대용표지($p<0.001$), 생략표지($p<0.01$)보다 정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5).

표 4. 쓰기와 말하기의 결속표지 유형별 정확률¹

과제 \ 유형	쓰기 (평균±표준편차)	말하기 (평균±표준편차)	t
어휘적 결속표지	97.20±7.97	94.05±11.91	1.390
생략표지	88.78±27.42	74.88±39.46	1.540
지시적 대응표지	75.00±16.08	75.22±25.84	-0.048
접속표지	100±0.00	97.70±6.56	1.923

¹ 단위는 %.

표 5. 결속표지 유형별 정확률 차이의 사후검정 결과¹

유형	어휘적 결속표지	생략표지	지시적 대응표지
생략표지	0.003**		0.319
지시적 대응표지	0.000***	0.319	
접속표지	0.843	0.000***	0.000***

¹ 제시된 수치는 각 유형간 차이의 p-value.

** p<0.01

*** p<0.001

IV. 고찰

정상 노년층은 결속표지를 모호하게 사용하며,¹³⁻¹⁷ 이러한 결속표지 사용은 언어를 통한 정보 전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13,38} 당연한 노화과정으로 여겨지던 언어능력의 감퇴가 재활서비스의 대상으로 변모하는 환경에서,³⁹ 정상 노년층을 대상으로 의사소통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노년층의 결속표지 사용에 대한 연구는 유용하다. 쓰기와 말하기는 결속표지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며,^{5,7,8} 노년층은 말하기보다 쓰기에서 모호한 결속표지 사용 특성을 덜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층의 결속표지 사용을 표현의 중요한 두 양태인 쓰기와 말하기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그 결과, 말하기로 산출할 때보다 쓰기로 산출할 때에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결속표지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노년층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을 위해 쓰기와 말하기를 각기 혹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말하기보다 쓰기로 산출할 때 사용된 전체 결속표지의 수는 적었다. 이는 쓰기보다 말하기가 파편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5,9-11} 즉, 말하기는 한 문장에 상대적으로 적은 내용을 담기 때문에,^{9,11} 문장들을 결속시켜 담화 전체 의미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결속표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말하기, 쓰기의 이야기 문법 및 응집구조 비교 연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⁶

결속표지의 유형별 사용률의 경우, 말하기보다 쓰기에서 참조적 결속표지의 사용률이 높았으며, 그중 세부적으로 어휘적 결속표지의 사용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일본어를 사용하는 정상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5,7} 이는 말하기보다 쓰기에서 더 높은 어휘밀도와 어휘다양도를 보이면서,⁹⁻¹² 많은 명사를 산출함에 따라 어휘적 결속표지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쓰기로

산출할 때는 진행속도가 말하기에 비해 느리기 때문에, 명확하고 다양한 어휘를 인출하여 표현할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8,9} 또한 독자와의 직접적이고 실시간적인 상호작용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인 모호함을 미리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8,9}

한편, 생략표지의 경우에는 말하기보다 쓰기에서 그 사용률이 낮았다. 일본어를 사용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참조적 결속표지 연구에서도 말하기보다 쓰기의 경우 생략표지를 덜 사용하였다.⁵ 이는 말하기로 산출할 때 상호작용 측면에서, 결속표지로 인한 모호함이 생기더라도 빠르게 해결이 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⁵ 또한 시간적으로, 말하기를 할 때는 쓰기에 비해 생각이 즉각 표현되기 때문에,^{8,9} 적절한 어휘를 인출하는 인지적인 노력을 들이기보다 생략표지를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⁴⁷ 지시적 대응표지도 말하기보다 쓰기에서 그 사용률이 낮았다. 지시적 대응표지와 생략표지는 유사한 기능을 가지며 이 둘 중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는 화자의 선택에 달렸다.³ 결론적으로, 말하기보다 쓰기에서 생략표지나 지시적 대응표지 대신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명사를 사용한 어휘적 결속표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단, 본 연구에서는 지시적 대응표지보다 생략표지가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지시적 대응표지의 사용이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결과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노년층에서의 접속표지의 사용률은 말하기보다 쓰기에서 낮았다. 이는 정상 성인이 말하기보다 쓰기에서 접속표지를 더 적게 사용함을 보고한 선행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⁹ 쓰기는 말하기보다 복잡한 구문 구조로서 한 문장에 많은 내용을 통합하는 반면에,^{9,10,11} 말하기는 상대적으로 단편적인 문장을 접속표지를 사용하여 이어나간다.⁹ 또한, 말하기에서는 ‘근데’ 등의 접속표지가 화자의 태도나 담화 구조를 표시하는 담화표지로 복합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40,41} 이 담화표지는 말하기에서 나타나는 고유의 특징이므로, 이 점도 쓰기와 말하기의 접속표지 사용률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쓰기와 말하기 내에서 결속표지 유형 간 정확률을 분석한 결과,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쓰기와 말하기에서 참조적 결속표지 중 어휘적 결속표지가 생략표지와 지시적 대응표지보다 높은 정확률을 보였다. 화자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이거나 오류가 생겨도 쉽게 정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거나 참조물이 전환되는 문맥에서도 생략표지나 지시적 대응표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4,5,14-16} 이때 청자는 참조물이 전환되었음을 알지 못해 내용 이해에 오해가 생기거나, 적절한 참조물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4,5,14-16} 따라서 생략표지와 지시적 대응표지에서 낮은 정확률을 보이는 것이다. 한편, 결속표지 오류는 쓰기과 말하기라는 언어 양태의 차이보다는 담화 유형의 친숙도나⁴² 결속표지의 유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⁵ 따라서 결속표지 정확률의 쓰기과 말하기 간의 차이는 명확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 쓰기는 말하기보다 어휘적 결속의 사용률이 높고 생략의 사용률이 낮다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어휘적 결속은 담화의 결속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게 돕는다.^{4,5} 쓰기과 말하기는 완전히 독립된 영역이 아니고 일부 동일한 처리 과정을 거친다.^{43,44} 그리고 최근 실어증 분야에선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 쓰기를 치료 도구로 이용하기도 한다.⁴³ 또한, 쓰기는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제약이 적고 내적인 활동이므로,^{5,8,9} 다양하고 정확한 어휘를 산출하고,⁹⁻¹² 스스로 산출 결과물을 확인하여 수정하면서,^{8,9} 쓰는 이가 온전한 수행을 연습하도록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표현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상 노년층의 언어훈련을 위해서 쓰기를 통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테면 담화훈련 시, 말하기로 진행한다면 생략이나 지시적 대응의 사용으로 모호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지나갈 수 있다. 반면에 쓰기로 진행할 때는 더 다양한 어휘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산출하는 연습을 하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⁹⁻¹²

또한, 노년층이 말하기에서 어휘인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어휘적 결속의 사용을 쉽게 하고 정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쓰기가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에서는 참조물 전환 문맥에서 결속표지의 오

류가 잘 일어난다.^{4,5} 참조물이 전환된 경우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계속해서 참조물을 생략하기 때문이다.^{4,5} 또한, 노년층의 경우는 단어 인출의 시간 지연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한 참조물의 구체적인 이름을 말하지 못하거나 틀리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한다.^{13,45,46} 이 때 핵심적인 단어를 적어 놓는다면, 담화를 산출하면서 필요할 때에 핵심적인 어휘를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 정확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시간적인 여유는 어휘적 결속표지 사용에 도움이 되므로,^{5,9} 노년층 화자와 대화하는 청자는 화자가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산출을 도울 수 있다. 또한, 노년층은 청자의 명확화 요구에 대해 민감도가 감소하여 모호한 결속표지를 사용하기도 하므로,¹³ 청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생략표지의 사용이 가져올 수 있는 모호함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⁹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첫째로 결속표지가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담화는 난이도와 유형에 따라 인지적 요구 수준, 산출에 요구되는 능력 등이 다르다.⁴⁸ 그리고 노년층의 저하된 결속표지 사용 능력의 원인으로 작업 기억의 문제를 들기도 한다.^{13,15,16} 따라서 담화 과제를 달리하였을 때 말하기와 쓰기에서 결속표지 사용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생략표지는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결속표지이다. 생략표지는 결속표지 결함을 보이는 환자군이 다른 결속표지 유형에 비해 두드러지게 낮은 정확률을 보이는 유형이다.¹ 또한, 발달적으로 생략표지는 어휘적 결속과 지시적 대용표지에 비해 성인의 정확률 수준에 가장 늦게 도달한다.⁴⁷ 이렇게 생략표지는 인지나 언어 능력의 발달 혹은 저하에 따라 다른 표지에 비해 더 큰 정확률의 차이를 보인다. 이를 통해 노화에 따라 인지나 언어 능력의 저하가 진행되면 어휘적 결속과 생략표지의 정확률은 더 큰 차이를 가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 노인의 경우엔 생략표지의 사용률이 낮은 쓰기가 말하기보다 전체 정확률이 높을 수 있다. 그러므로 노년층의

연령 집단에 따른 결속표지 정확률의 차이나 청년층과의 정확률 비교가 의미 있을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정상 노년층 30명을 대상으로 쓰기와 말하기의 결속표지 사용률과 정확률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정상 노년층은 쓰기에서 말하기보다 모호함을 일으킬 수 있는 결속표지를 덜 사용하고, 의미를 명확하게 해주는 결속표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는 쓰기가 말하기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어휘를 인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며,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에 듣는 이가 경험할 수 있는 모호함을 피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년층은 쓰기로 산출할 때 말하기로 산출할 때보다 더 많은 구체적인 어휘를 사용하여 담화 전체의 결속을 이룬다. 그리고 이 어휘적 결속을 통해 노년층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모호함 없이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이는 노년층의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해 쓰기가 훈련 수단, 말하기의 보조수단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시사한다.

본 연구는 노년층 대상 연구에서 말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아왔던 쓰기에 초점을 두고, 쓰기와 말하기에서의 결속표지의 차이와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해 쓰기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밝혀냈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담화의 종류 및 수준에 따른 노년층 결속표지 산출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노년층의 연령 집단에 따른 결속표지 정확률의 차이나 청년층과의 정확률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윤지연, 이윤경. 유창성 실어증 환자의 이야기 결속표지 사용 특성. 음성과학 2005;12(4):237-45.
2. 노석기. 우리말 담화의 결속 관계 연구. 한글 1990;208:91-129.
3. Halliday MAK., Hasan R. Cohesion in English. 1st ed. London: Longman Group; 1976.
4. Clancy PM. Referential strategies in the narratives of Japanese children. Discourse Process 1992;15(4):441-67.
5. Clancy PM. Written and spoken style in Japanese narratives. In: Tannen D, editor. Spoken and written language: exploring orality and literacy. 9th ed. Norwood(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1982. p.55-76.
6. 김희규, 강정숙. 언어학습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말하기·쓰기에 나타난 이야기 문법 및 응집구조 비교. 특수교육학연구 2005;39(4):43-60.
7. 이혜연, 정경희. 학령기 아동의 설명담화 말하기와 쓰기 발달 - 구문, 의미, 결속장치를 중심으로 -. 언어치료연구 2013;22(2):145-61.
8. 김미형. 한국어 구어와 문어의 특징 연구. 한말연구 2004;15:23-73.
9. Chafe WL. Integration and involvement in speaking, writing, and oral literature. In: Tannen D, editor. Spoken and written language: exploring orality and literacy. 9th ed. Norwood(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1982. p.35-53.
10. Bromley DB. Aspects of written language production over adult life. Psychol Aging 1991;6(2):296-308.
11. Mitzner TL, Kemper S. Oral and written language in late adulthood: findings from the nun study. Exp Aging Res 2003;29:457-74.
12. Chafe WL, Tannen D. The relation between written and spoken language. Annu Rev Anthropol 1987;383-407.

13. Ulatowska HK, Hayashi MM, Cannito MP, Fleming SG. Disruption of reference in aging. *Brain Lang* 1986;28:24-41.
14. Juncos-Rabadán O, Pereiro AX, Rodríguez MS. Narrative speech in aging: quantity, information content, and cohesion. *Brain Lang* 2005;95(3):423-34.
15. Cohen G. Language comprehension in old age. *Cogn Psychol* 1979;11:412-29.
16. Pratt MW, Boyes C, Robins S. Telling tales: aging, working memory and the narrative cohesion of story retellings. *Dev Psychol* 1989;25(4):628-35.
17. Juncos-Rabadán O. Narrative speech in the elderly: effects of age and education on telling stories. *Int J Behav Dev* 1996;19(3):669-85.
18. 한국인터넷진흥원. 2013년 인터넷이용조사실태조사. 2013.
19. 김동배, 김상범, 김세진. 서울지역 장·노년층의 인터넷활용능력, 대인관계능력, 사회활동에 관한 연구: 잠재평균분석을 활용한 집단비교. *한국노년학* 2011;31(3):733-49.
20. Nasreddine ZS, Phillips NA, Bedirian V, Charbonneau S, Whitehead V, Collin I, et al. The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MOCA: a brief screening tool for mild cognitive impairment. *J Am Geriatr Soc* 2005;53:695-99.
21. 강연옥, 박재설, 유경호, 이병철. 혈관성 인지장애 선별검사로서 Korean-Montreal Cognitive Assessment(K-MoCA)의 신뢰도, 타당도 및 기준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009;28(2):529-62.
22. 최현주. 노년층의 담화 산출 특성: 노화, 성별, 교육정도에 따른 차이. *말소리와 음성과학* 2012;4(2):135-43.
23. 이영미, 김향희. 대화와 그림설명과제를 통한 한국성인 발화의 비교 분석.

- 언어청각장애연구 2001;6(1):40-52.
24. 신예영, 윤혜영. 흥부와 놀부. 서울: 도서출판 새샘; 2001.
 25. 김정완, 김향희, 남궁기, 김세주, 김덕용. 알츠하이머형 치매환자의 발화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2006;11(3):82-98.
 26. 이승진, 김향희, 서상규, 김미경. 유창성 및 과제에 따른 실어증 환자의 품사 산출의 양상 비교. 언어청각장애연구 2009;14(4):470-83.
 27. 김정완. 정상 노인과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의 자발화 산출에서의 언어적 특징. 한국노년학 2012;32(3):747-58.
 28. Liles BZ.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of narrative discourse in normal and language disordered children. J Commun Disord 1985;18(6):409-27.
 29. 변주영, 신지철, 김덕용, 김향희. 유창성 실어증 환자의 자발화 이야기문법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2009;14(2):160-72.
 30. 서상규, 안의정, 봉미경, 최정도, 박종후, 백해과 외. 한국어 구어 말뭉치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2013.
 31. 김태엽. 국어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하여. 언어학 1998;22:171-89.
 32. 유현경.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대하여. 한글 2003;261:123-48.
 33. 신지연. 어말어미 '-거든'에 대한 연구. 텍스트언어학 2000;8:251-70.
 34. 손옥현, 김영주. 한국어 구어에 나타난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양상 연구. 한국어의미학 2009;28:49-71.
 35. 조민하. '-는데'의 종결기능과 역양의 역할. 우리어문연구 2011;40:225-254.
 36.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두산동아; 1999.
 37. 장경현. 연결어미에서 기원한 종결어미의 의미연구 - '-고/-는데'의 담화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2012;38:109-34.
 38. Hoskyn M, Swanson LH.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ing memory

- and writing in younger and older adults. *Read Writ* 2003;16:759-84.
39. 박현, 신혜정, 손명동. 노인들의 언어 문제와 언어 재활 인식에 관한 기초 조사. *언어치료연구* 2012;21(4):227-47.
40. 강소영. 복합형 담화표지의 의미기능 연구 -아 근데, 아니 근데를 중심으로-. *한국어어미학* 2014;44:313-344.
41. 노은희. 본격적인 화제전환을 위한 담화표지 연구 -‘다름 아니라’, ‘그건 그렇고’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2012;20:39-69.
42. Rossi F, Pontecorvo C, López-Orós M, Teberosky A. Referential development in storytelling and in storywriting of Catalan and Italian children. *Lang Educ* 2000;14(3):164-83.
43. 하지완, 편성범, 황유미, 이호영, 심현섭. 유창성 실어증 환자의 구어와 문어 문장산출 능력 비교. *말소리와 음성과학* 2013;5(3):103-11.
44. Naucér K. Connections between spoken and written language evidence from three investigations on normal and pathological written performance. *J Pragmat* 1983;7(5):595-602.
45. 김정완, 황재호, 김수련, 김향희. 정상 노인의 연령에 따른 주의력 및 이름대기 능력의 차이. *언어치료연구* 2013;22(3):25-44.
46. Verhaegen C, Poncelet M. Changes in naming and semantic abilities with aging from 50 to 90 years. *J Int Neuropsychol Soc* 2013;19:119-26.
47. 양수진. 이야기 결속표지 발달: 4세, 6세, 8세 및 성인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48. 전영미, 김화수. 정보전달능력을 중심으로 한 20대부터 50대까지의 연령대별 담화특성. *재활복지* 2015;3:297-320.
49. 김향희, 권미선, 나덕렬, 최상숙, 이광호, 정진상. 실어증환자 자발화의 유창성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998;3:5-19.
50. 권재일. *한국어 문법론*. 경기: 태학사; 2012.

부록

1. 전사 규칙과 그 예¹⁾

전사 규칙	예
1. 쓰기는 오·탈자, 문장부호,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대상자가 작성한 그대로 옮김. 단어, 구, 문장을 삽입하는 경우 “^ ^” 기호를, 스스로 수정한 경우 “-” 기호를 사용하여 표기. 단, 자가 수정으로 원래 작성한 것이 보이지 않는 경우 음절수에 따라 "X"로 표기.	1. 흥부네 가족이 ^불쌍하게^ 쫓겨나는것 쫓 가운데 가다가 어느집 앞에 도착을 한것같다.
2. 말하기는 비표준발음의 경우 철자법에 맞게 적고 음소표기를 “()” 기호를 사용하여 보충함.	마당에 박씨 하나를 딱 넣어 (너) 줬어요.
3. 말하기의 억양은 다음과 같이 표시. 하강억양: . 상승억양: ? 약한 상승이나 하강억양: , 활기에 넘치는 기운찬 어조(감탄의 끝): !	제비네 가족이 강남에 갔다 오면서, 박씨를 물어다 줬어요. 그래서 큰 부자가 됐대요!
4.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은 <X X>안에 전사. 또 화자의 발화 내용이 전혀 들리지 않는 부분은 ‘...’로 전사.	놀부한테 학대를 받아가지고 <X쫓겨났는데X>.
5. 쉽은 2초 이상의 시간간격이 있는 경우 {긴 쉽}으로, 0.2초 이상 2초 미만의 시간간격이 있는 경우는 {쉽}으로 전사. 단, 한 어절 사이의 짧은 쉽은 ‘..’로 표시하여 한 단어가 유지됨을 나타냄.	흥부는{쉽} 보따리를 싸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는데 {긴 쉽}
6. 불완전하게 발화된 단어는 발화된 대로 그대로 전사하고 ‘=’를 붙여 정상적인 단어와 구별함. 또한, 이는 분석에서 제외함.	흥부네 가= 흥부와 흥부마누라는 동생인 흥부네 가족을 쫓아내고

7. ‘이, 그, 저, 아, 어’ 등 기존 품사의 의미, 기능을 가지지 않는 것은 담화표지로 보고 물결표(~)를 이용하여 표시. 주로 머뭇거림의 표지로 사용되는 ‘이~, 그~, 저~, 어~, 아~, 인제~’등이 해당.	밥을 빌리러 갔는데, 그~ 형수가 밥을 푸다가
6. 화자의 감정 표현 때문에 나타나는 표현적 장음에 대해서는 ‘::’를 붙여 표시.	홍부가 놀래서:: 얼른 구렁이를 쫓아버렸어요.
9. 두 억양단위가 쉽 없이 빨리 이어지는 경우 뒤의 발화 앞에 ‘&’을 붙여 전사.	놀부 부인이 굉장히 욕심이 많았다. &놀부도 욕심이 많고.
10. 뚜렷한 쉽 없이 연속되어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반복되는 발화는 자가 수정으로 보아 동일 발화로 간주함. 최종 수정된 발화 외에 유사 혹은 동일하게 반복된 부분은 ‘% %’안에 전사하고 분석에서 제외.	근데 %홍부..가 이~ 놀부 마누라 에~,% 홍부가 놀부마누라에게 밥을 얻으러 갔다가,
11. 주제와 관련한 이야기가 아닌 혼잣말이나 과제 수행에 대한 일반적인 발화의 경우 ‘+ +’안에 전사하고 분석에서 제외.	홍부가 놀부 마누라에게 밥을 얻으러 갔다가, +이게 맞나 지금?+, 어~ 주걱으로 뺨을 맞았네.
12. 비언어적반응은 []안에 표시. 비언어적반응은 표정, 몸짓, 손짓을 의미.	형님 덕에{긴 쉽}[책상을 손가락으로 침] 밥을 빌리러 갔는데
13. 준음성과 기타 소리들은 / /안에 표시.	그래서 박을 심었는데, /숨 들이쉽/ 그 박이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1) 서상규, 안의정, 봉미경, 최정도, 박종후, 백해과 외(2013)³⁰

2. 문장 및 발화 구분 원칙과 그 예¹⁾²⁾³⁾

기준	예
1. 말하기와 쓰기 모두 종결어미가 있으면 끊어줌.	그래서 밥도 못 얻어먹고{쉽} 집으로 왔어요.//
2. 단, 종결어미 뒤에 내용상 이어지는 문장 성분이 나오면 같은 문장 안에 포함시킴.	홍부가 심었더니 주렁주렁 달렸어요, 큰 박이. // 그 큰 박을 톱질을 해서, 온갖 금은보화가 나왔어요.
3. 말하기와 쓰기 모두 연결어미에 뒤이어 접속부사(예: 그리고, 그래서) 등 문장경계표지가 동반되는 경우 나오면 연결어미 바로 뒤에서 끊음.	새끼들을 구렁이가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홍부가 놀래서 얼른 구렁이를 쫓아 버렸어요.
4. 말하기가 연결어미(-거든, -게, -고, -는데, -다고, -다니까, -다면서, -려고, -서)로 이어지는 경우, 억양의 큰 상승 혹은 하강 변화나 2초 이상의 시간간격이 있는 연결어미 뒤에서 끊음.	홍부는 보따리를 싸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는데{긴 쉽}// 초가삼간 쪼그만 집에서 사는데, 애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밥을 빌리러 갔는데,
5. 쓰기의 경우 계속해서 연결어미(-고, -는데)로 이어질 때, 2번째 뒤에서 끊음. 단, ‘-고’와 ‘-는데’외에 4번에서 제시한 연결어미(-거든, -게, -고, -는데, -다고, -다니까, -다면서, -려고, -서) 중 특정한 연결어미가 문장 내에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 2번째 해당 연결어미에서 끊음.	이 제비가 이듬해 올 때 박씨를 하나 물고와서 이 박씨를 심어서// 이것이 자라서 박이 열려서// 홍부 부부가 즐겁게 타고 있는데 여기 박속에서 금은보화가 많이 나와서 홍부는 부자가 되어 잘살게 되었는데//
6. 말하기와 쓰기 모두 명사나 명사화 어미(예: ~것, 음)로 서술어를 대체하는 경우 명사나 명사구 다음에서 나눔.	홍부가 놀부형님한테 집에서 쫓겨나는 것// 홍부가 형부한테 밥주걱으로 얻어맞는 것//

7. 말하기와 쓰기 모두 문장 안에 대화나 독화와 같은 인용구문이 안기는 경우 따로 나누지 않음	이제 흥부가 놀부..집에 가서 형수님, 형수님, 저 밥이 없으니까 밥 좀 주세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랬어요.//
6. 말하기의 경우, 뚜렷한 쉼을 가지고 유사 혹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발화가 다른 연결어미를 사용하면 그 앞에서 나눔.	흥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떠났는데{쉼}// 집을 떠나서 초가삼간에 사는데,

1) 김향희, 권미선, 나덕렬, 최상숙, 이광호, 정진상(1996)⁴⁹

2) 이영미, 김향희(2001)²³

3) 이승진, 김향희, 서상규, 김미경(2009)²⁶



3. 결속표지 판별 원칙과 그 예¹⁾²⁾

판별 원칙	예
<p>청자 혹은 독자가 완전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 문장 밖을 찾아보아야만 하는 요소를 결속표지로 판단.</p> <p>접속표지의 경우 앞선 말과 뒤선 말을 결속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말을 접속표지로 판단.</p>	
<p>같은 대상을 참조하는 결속표지가 한 문장 안에 여러 개 있어도 문장 내에서 의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엔 모두 결속표지로 분석.</p> <p>단, 한 문장 안에서 동일 지시인 성분이 되풀이 되면 문장성분이 생략되거나 대치되는 통사 현상이 일어남.⁵⁰ 이는 담화상황에서 일어나는 것과 구별되므로,⁵⁰ 결속표지로 분석하지 않음. 그러나 문장성분이 다른 경우 결속표지로 분석.</p>	<p>∅(홍부는) 박씨를 받아서 ∅(홍부는) 그 박씨를 심었지. : 생략표지 1개</p>
<p>명사 어휘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람, 동물, 장소, 사물만을 분석대상으로 함.</p>	<p>추상명사와 시간(아침, 밤, 그때 등), 소리(지지배배) 등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한다.</p>

1) Liles(1965)²⁸

2) Halliday & Hasan(1976)³

4. 각 결속표지 유형의 정의와 분석범위 및 예¹⁾

유형	정의 및 분석 범위	예
어휘적 결속 표지	참조물을 동일한 어휘 또는 유사어휘를 사용해 반복하는 경우로 분석함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줬어요.
	이, 그, 저와 결합된 명사가 선행 문장에 등장한 어휘의 반복인 경우 어휘적 결속으로 분석.	<u>그</u> 박씨를 심었더니, 큰 박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참조적 결속 표지	필수적인 논항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빈 곳으로 남아 있을 때의 경우에 생략되었다고 판단함(필수적 논항자리: 주성분인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의 부사어).	홍부는 형님 댁에 밥을 빌러 갔는데, 형수가 주걱으로 따귀를 꽂 때렸어요. 결국 ∅ 밥도 못 얻어먹고 집으로 왔어요.
	지시대명사와 인칭대명사에 한하여 분석함. 또한, 지시관형사에 의존성이 높은 명사가 결합되어 한 덩어리로 쓰이는 경우도 지시적 대응으로 간주함. 단, 지시관형사와 결합된 명사가 선행 문장에 등장한 어휘의 반복이더라도 정확한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 지시관형사의 역할이 더 큰 경우 지시적 대응표지로 분석.	1. 지시대명사: 이것, 저것, 그것 / 이쪽, 저쪽, 그쪽 / 여기, 저기, 거기 등 2. 인칭대명사: 나, 너, 우리 등 3. 지시관형사+ 의존도가 높은 명사: 애, 재, 개 / 이, 그, 저 + 앞, 뒤, 옆, 중 4. 홍부 집에서 제비가 돌아갔어요. 나중에 제비가 <u>그</u> 집에 박씨를 물어다 줬어요.
접속표지	문맥에 따라 앞문장과 뒷문장을 결속시켜 주는 특정한 의미를 가진 표지.	박에서 온갖 금은보화가 나왔어요. <u>그래서</u> 홍부가 부자가 됐어요.

¹⁾ Halliday & Hasan(1976)³

5. 결속표지 정확성의 판별 원칙과 그 예¹⁾

유형	판별기준	예
정확한 결속	결속표지에 의해서 참조되는 정보를 모호함 없이 찾을 수 있고 분명하게 밝혀지는 경우.	
불완전 결속	결속표지가 참조하는 정보가 텍스트 안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	집에 온 흥부는 구렁이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u>제비</u> 가 <u>거기</u> 다녀오면서 박씨를 물어왔어요.
오류적 결속	결속표지가 청자를 모호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유도하는 경우.	1. 놀부가 흥부네 집에 밥을 얻으러 갔어요. 2. 흥부네 집에 제비가 집을 지었는데 구렁이가 나타나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u>우리</u> <u>아빠</u> 가 다리를 잘 보호를 해줬어요.

¹⁾ Liles(1965)²⁸

Abstract

Comparative study of cohesive devices in written and spoken
language of the normal elderly

Jung Won Lee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ang Hee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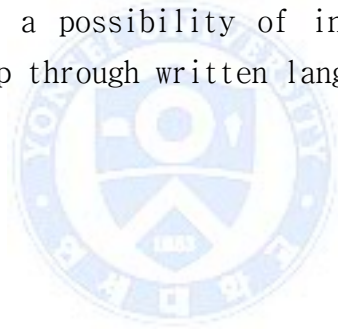
Normal elderly group ambiguously use cohesive devices which play important roles in conveying clear communications. Therefore, the study on use of cohesive devices will be useful to find a method of increasing the quality of communications of elderly group. This study examined how differently the normal elderly make use of cohesive devices in each of written language and spoken language.

Target normal elderly group of 30 people were asked to write and speak Heungbu Nolbu story. Thereafter, utilization and accuracy rate of cohesive devices in written and spoken languages were categorized by type of lexical cohesion, ellipsis, substitution and conjunction devices, and later compared.

The results of comparison between written and spoken languages suggest that the utilization rate of referential cohesion devices, especially lexical cohesion devices of written language was higher than that of spoken language. It is because written language when compared to spoken language is non-personal, but rather

independent and non-real time in terms of interaction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use more specific vocabulary to avoid potential ambiguity when writing and thus more time for selecting correct vocabulary are allowed. In addition, the results of comparison between different types of cohesive devices show that lexical cohesive devices had relatively higher accuracy than ellipsis cohesive devices.

In other words, when elderly group use spoken language, they use more specific vocabulary to make cohesion and this helps to clear meanings to convey. In addition, as problems of cohesive devices known to be appearing in elderly group were found less in written language, we can find a possibility of increasing communication skills of elderly group through written language.



Key words: Normal elderly, cohesive devices, written language, spoken language, discourse